

#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초우량기업의 판도

세계적인 우량기업이라고 인식되는 'FORTUNE GLOBAL 500'에 속하는 기업의 국가와 업종별 판도가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비해 글로벌 500대 내 순위 뿐 아니라 매출비중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초우량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배지현 책임연구원 jhbae@lger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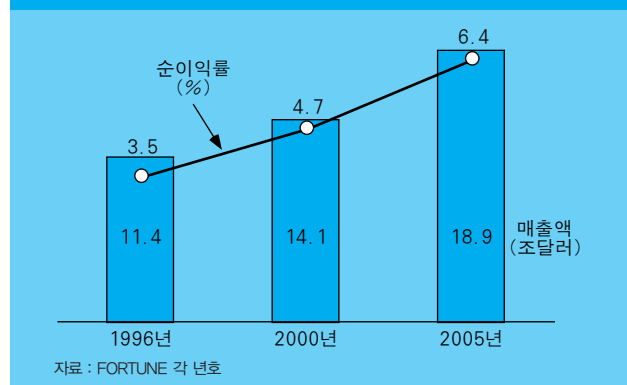
미국의 시사경제 주간지 FORTUNE에서는 매년 'FORTUNE GLOBAL 500'이라고 하여 전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발표한다. 'FORTUNE GLOBAL 500'에 선정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게도 영광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글로벌 500대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량한 기업으로 널리 인지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가로 해당 국가의 경쟁력을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량기업의 기준을 단순히 매출액 크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이 우량한지 여부는 외형적인 크기 이외에도 수익성이나 성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실적을 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지표가 매출액이고 매출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이 지역적으로나 산업 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글로벌 500대 기업의 변화를 파악하여 전세계 초우량기업의 국가별·업종별 판도변화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우리나라 순위 10년 전보다 하락

지난 10년간 글로벌 500대 기업은 외형과 내실 면에서 모두 발전하였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매출액을 합한 총금액은 1996년 11.4조달러에서 2005년 18.9조달러로

〈그림 1〉 글로벌 500대 기업 매출액 및 순이익률 추이



10년 동안 65.5%가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약 5.8%씩 성장한 셈이다. 수익성도 과거에 비해서 크게 좋아졌다.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순이익률이 1996년 3.5%에서 2005년 6.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표 1〉은 1996년, 2000년, 2005년 3개년간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 글로벌 500대 기업의 국가별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 동안 최상위권의 국가별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5개 나라의 독주가 줄곧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수에 있어서 압도적이므로 당분간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위 아래의 국가별 순위에는 변화가 나타나

**중국,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 국가들의  
글로벌 500대 내 순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 소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속하는 국가들의 약진이다. 과거 글로벌 500대에 속하는 기업은 한 개 정도밖에 배출하지 못했던 이들 나라들이 지금은 무서운 속도로 상위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일례로 1996년 15위에 머물렀던 중국의 경우 2005년에는 무려 9단계나 상승한 6위를 기록하여 전통적인 강대국을 바짝 추격하

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 스위스, 브라질, 벨기에 등과 같은 나라들은 과거에 비해 순위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7위에서 9위로 10년만에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의 절대적인 기업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1~13개 기업 수를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순위가 낮았던 다른 나라

〈표 1〉 'FORTUNE GLOBAL 500' 국가별 순위

1996년			2000년			2005년		
순위	국가	기업수	순위	국가	기업수	순위	국가	기업수
1	미국	162	1	미국	185	1	미국	170
2	일본	126	2	일본	104	2	일본	70
3	프랑스	42	3	프랑스	37	3	프랑스	38
4	독일	41	4	독일	34	4	영국	38
5	영국	34	5	영국	33	5	독일	35
6	스위스	14	6	캐나다	15	6	중국	20
7	이태리	13	7	중국	12	7	네덜란드	14
7	한국	13	8	스위스	11	7	캐나다	14
9	네덜란드	8	8	한국	11	9	스위스	12
10	캐나다	6	10	네덜란드	9	9	한국	12
11	호주	5	11	이태리	8	11	이태리	10
11	브라질	5	12	호주	7	12	스페인	9
11	스페인	5	13	스페인	6	13	호주	8
14	스웨덴	4	14	스웨덴	5	14	스웨덴	6
15	벨기에	3	15	브라질	3	14	인도	6
15	중국	3	15	벨기에	3	16	멕시코	5
17	영국/네덜란드	2	17	영국/네덜란드	2	16	러시아	5
17	노르웨이	2	17	노르웨이	2	18	브라질	4
17	홍콩	2	17	핀란드	2	18	벨기에	4
20	벨기에/네덜란드	1	17	멕시코	2	20	대만	3
20	핀란드	1	17	러시아	2	21	노르웨이	2
20	인도	1	22	벨기에/네덜란드	1	21	핀란드	2
20	말레이시아	1	22	인도	1	21	덴마크	2
20	멕시코	1	22	말레이시아	1	24	영국/네덜란드	1
20	앤티리스 제도	1	22	베네수엘라	1	24	벨기에/네덜란드	1
20	러시아	1	22	룩셈부르크	1	24	말레이시아	1
20	대만	1	22	싱가폴	1	24	터키	1
20	터키	1	22	남아공	1	24	베네수엘라	1
20	베네수엘라	1				24	오스트리아	1
						24	아일랜드	1
						24	룩셈부르크	1
						24	사우디아라비아	1
						24	싱가폴	1
						24	태국	1

주 : 1. 기업 수 기준, 2. 합작기업은 별개의 국가로 산정  
 3. 2005년 기준 글로벌 500대에 속한 12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46위), LG(72위), 현대차(80위), SK(주)(111위), 삼성생명(224위), 포스코(236위), 한국전력(240위), 국민은행(364위), 한화(381위), KT(397위), 삼성물산(445위), SK네트웍스(467위)임.  
 자료 :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자료를 LG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10년간 1, 2위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수와 매출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들이 치고 올라와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이다.

과거에 글로벌 500대 기업을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던 나라들도 새롭게 명함을 내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의 나라가 200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하면서 글로벌 500대 기업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소수 선진국이 지배하던 글로벌 500대 기업이 향후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될 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미국과 일본의 위세 크게 약화**

최근 10년간 국가별 비교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미국과 일본의 매출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2〉참조).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도 기업수로 보나 매출비중으로 보나 국가별 순위에서 굳건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추세는 2001년 이후로 꺾여 최근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즉 미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1996년 31.0%에서 2001년 42.0%까지 상승하고 기업 수도 162개에서 197개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매출비중이나 기업 수 모두 감소하여 최근에는 각각 36.0%, 170개로 줄어든 상태이다.

2위인 일본은 약화되는 추세가 더 심하다. 일본은 10년 전만 해도 매출비중 29.0%, 기업 수 126개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매출비중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 12.3%로 반 토막이 나고 기업 수도 70개로 급감하였다. 최근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의 불황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글로벌 500대에서도 가시적인 반전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가 있겠다.

**신흥시장 국가들의 약진 돋보여**

미국, 일본의 약세와는 반대로 신흥시장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 기업 수뿐만 아니라 매출비중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가장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이다. 10년 전 중국의 매출비중은 겨우 0.4%였다. 그러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3.3%로 2.9%p나 성장하였다. 기업수도 3개(홍콩 포함 시 5개)에서 20개로 그 수가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글로벌 500대에 속하는 중국기업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내수독점에 가까운 국영기업체들이므로 글로벌 초우량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내수위주의 중국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글로벌 500대에서 중국의 약진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이외의 신흥시장 국가들 중 인도, 러시아, 멕

〈표 2〉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500대 내 매출비중 추이 (%)

구분	국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감소국가	미국	31.0	34.7	36.9	36.9	39.1	42.0	39.5	39.3	37.0	36.0
	일본	29.0	25.9	22.2	23.1	20.9	17.5	18.0	14.7	14.2	12.3
증가국가	중국	0.4	0.6	1.0	1.6	1.9	1.9	1.7	2.4	2.8	3.3
	인도	0.1	0.1	0.1	0.1	0.2	0.1	0.2	0.4	0.5	0.6
	러시아	0.2	0.2	0.1	0.2	0.2	0.2	0.3	0.4	0.5	0.8
	멕시코	0.2	0.2	0.2	0.3	0.4	0.4	0.4	0.3	0.5	0.8
	네덜란드	1.6	1.8	1.8	1.9	2.1	2.2	2.5	2.6	2.8	4.3
	스페인	0.7	0.6	0.7	0.8	1.1	1.0	0.9	1.1	1.2	1.4

자료 :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자료를 LG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우리나라의 글로벌 500대 내 매출비중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여 상대적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

시코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10년 전만해도 글로벌 500대 내에 겨우 1개의 기업만을 신고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5~6개로 그 수가 급증하였고 매출비중도 커졌다. 이 밖에 유럽국가 중 네덜란드(8개→14개)와 스페인(5개→9개)의 발전도 눈여겨볼만하다.

**우리나라 매출비중은 10년 전보다 낮아져**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기업 수에 있어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9개)을 제외하고는 10년간 11~13개 사이로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비중은 최근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996년 2.9%에서 2005년 2.1%로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상태이다(〈그림 2〉 참조).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가 약진하는 신흥시장 국가들과 상반되게 매출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상대적 후퇴'를 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글로벌 500대에 근접하는 후보군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후보군은 글로벌 500대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해당연도에 마지막 순위인 500위를 기록한 기업과 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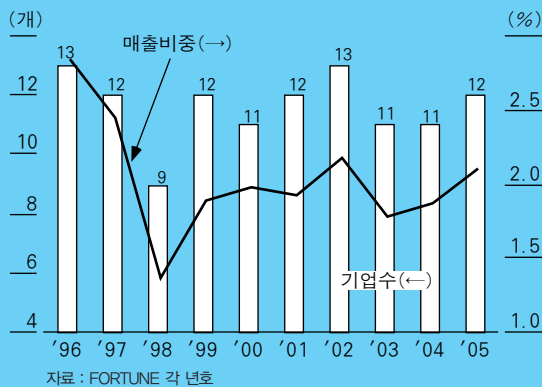


국내기업 중 글로벌 500대 내에 신규로 속할 수 있는 후보를 아직까지도 찾기 힘들다.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에도 수많은 후보군이 존재할 것이므로 단순히 국내기업만 감안하여 후보군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 글로벌 500대와의 간격이 좁혀졌는지의 여부는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996년과 2005년에 각각 500위를 기록한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 속하는 기업을 찾아 보았다. 글로벌 500대는 연결회계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므로 국내 기업들도 연결매출액으로 따져야 하나 데이터상의 제약 때문에 해당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개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연결 매출액보다 그 금액이 과소평가되는 면이 존재한다. 파악 결과 후보군 기업은 1996년이나 10년이 지난 2005년이나 단 한개의 기업도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서는 순위 밖에 있는 국내기업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500대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기업의 수는 아직까지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다.

**〈그림 2〉 한국의 글로벌 500대 내 기업 수 및 매출 비중 추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업종은 유틸리티와 석유정제이다.**

**업종간에도 명암 뚜렷**

글로벌 500대 기업들을 살펴보면 국가별 변화와 마찬가지로 업종별로도 과거에 성했던 업종이 쇠하고, 쇠했던 업종이 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그 세가 가장 약화된 업종은 종합상사이다(〈표 3〉 참조). 종합상사는 10년 동안 기업 수는 22개에서 10개로, 매출 비중은 9.8%에서 1.2%로 확 줄었다. 특히 2003년부터는 그 감소세가 더욱 급격한데, 이는 업종의 매출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2003년에 미국 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매출액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산정함에 따른 결과이다. 단순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에 따른 변화이므로 이를 두고 종합상사 업종이 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전 추세를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그 세가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전기전자(반도체 포함)와 화학도 과거에 비해 위축되고 있다. 전기전자는 1996년 26개 기업, 7.1%의 매출비중에서 2005년 21개 기업, 4.5% 매출비중으로 줄었다. 화학도 10년 동안 기업 수는 14개에서 10로, 매출비중은 2.4%에서 1.4%로 줄어들었다. 전기전자와 화학이 수많은 글로벌 우량기업이 존재하는 업종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그 경쟁강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업종은 유틸리티와 석유정제이다. 유틸리티 업종의 기업 수는 1996년 14개에서 2005년 23개로, 매출비중은 2.5%에서 3.3%

로 그 위세가 크게 높아졌다. 석유정제업의 경우 과거 31개 기업에서 최근 34개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매출비중은 8.7%에서 14.1%로 급성장하였다. 광업, 원유채굴업도 10년 전 3개, 0.5%에서 최근 8개, 0.9%로 기업 수와 매출비중 모두 2배 남짓 커졌다. 이는 최근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정유업계의 호황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업종별 변화, 국가별 변화와 연관**

국가와 업종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국가별 변화는 업종별 판도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쇠락한 종합상사의 경우 과거에는 일본기업의 독무대였다. 10년 전에는 총 22개 기업 중 일본기업이 13개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총 10개 기업 중 5개의 일본기업만이 글로벌 500대에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상사 이외에 일본기업이 그 지위를 크게 상실한 업종은 금융, 특히 은행과 보험이다. 은행의 기업 수는 10년 전 14개에서 3개로, 보험은 16개에서 7개로 크게 줄었다.

미국은 전반적인 업종에서 기업수가 조금씩 감소한 것이 위세 저하의 원인이나 에너지업종의 감소는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에너지는 전체적으로는 그 비중이 증가한 업종이나 미국의 경우 전성기인 2001년과 비교해서 에너지업종 기업 수가 12개에서 2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보험에서도 미국은 2001년 18개에서 최근 10개로 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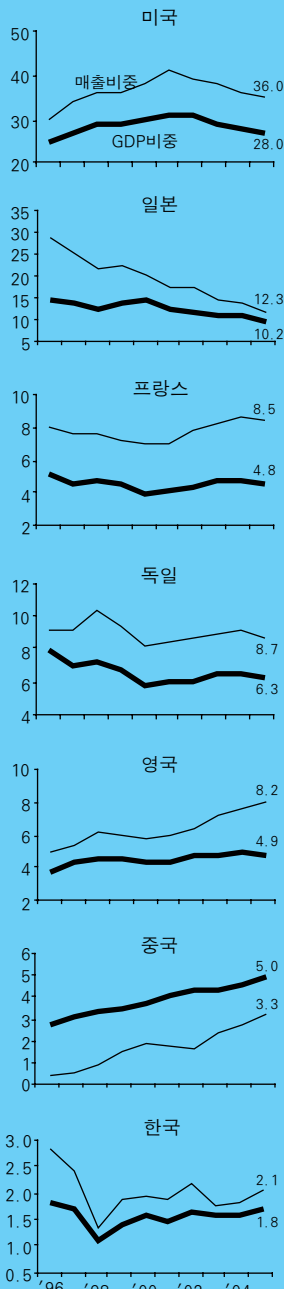
〈표 3〉 글로벌 500대 기업의 업종별 매출비중 추이 (%)

구분	국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감소업종	종합상사	9.8	8.8	7.4	7.0	6.2	5.2	5.1	1.3	1.3	1.2
	전기전자	7.1	7.1	6.8	5.7	5.8	4.8	5.0	5.1	4.9	4.5
	화학	2.4	2.6	2.2	1.6	1.4	1.0	1.0	1.3	1.4	1.4
증가업종	유틸리티	2.5	2.7	2.9	2.8	2.7	2.8	2.7	3.4	3.4	3.3
	석유정제	8.7	8.3	6.5	7.1	9.2	8.6	9.3	11.3	12.3	14.1
	광업, 원유채굴	0.5	0.5	0.5	0.6	0.8	0.8	0.6	0.7	1.0	0.9

자료 :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자료를 LG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매출비중 추이와 GDP 비중 추이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글로벌 초우량기업이 해당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각국 매출비중과 GDP 비중 추이 (%)



자료 : Global Insight, FORTUNE 각 년호

가 감소하였다.

반면 유틸리티가 10년 동안 14개에서 23개로 그 수가 크게 늘게 된 것은 중국(2개), 러시아(1개), 멕시코(1개), 스페인(2개)이 새롭게 기여한 바가 크다. 석유 정제도 과거에는 없었던 인도기업들이 4개나 포진되어 있고 러시아(2개), 중국(1개), 멕시코(1개) 기업들도 편입되었다. 이 밖에도 광업, 원유채굴업 역시 10년 전에 비해 5개 기업이 늘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호주, 러시아, 인도 기업들이 한 개씩 포함되어 있다.

**매출비중 추이, GDP 비중 추이와 유사**

흥미로운 사실은 글로벌 500대 기업내 국가별 매출비중 추이는 전 세계 GDP에서 해당 국가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 참조). 앞서 살펴본 매출비중 추이와 비슷하게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25.9%)부터 2001년(32.1%)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추세가 꺾여 최근에는 28.0%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일본의 GDP비중은 10년 전 15.3%에서 최근 10.2%로 계속 줄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최상위권 국가들도 매출비중과 GDP비중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 역시 10년 전 2.8%에서 최근 5.0%로 GDP비중이 놀라운 속도로 늘면서 매출비중과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비중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8%이다.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 신흥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은 매출비중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경제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한 글로벌 초우량기업 더 나와야**

글로벌 500대 국가별 비중 추이와 GDP비중 추이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초우량기업의 존재가 해당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많이 배출하는 것만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양극화 현상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키우는 것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세계 무대에서 외국의 거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초우량 기업이 계속 늘어나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글로벌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정부차원에서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www.ljeri.com](http://www.ljeri.com)